

'재시공' 지산IC 조선대 우회도로 9월 4일께 개통

부실 공사로 1년 넘게 이용 통제...동구, 내달 3일 최종 현장 점검 하자 발견되면 개통 늦어질 듯...부실 시공업체 상대 소송 제기도

부실 공사로 1년 넘게 이용이 통제된 지산IC 조선대 우회도로(2023년 11월 8일자 광주일보 6면)가 복구 완료돼 다음달 개통한다.

광주시 동구는 지산IC 조선대 우회도로 재시공 준공 및 개통 일자가 오는 9월 4일로 잠정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동구는 오는 29일 아스콘 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차로 공사를 마친 뒤, 일주일에 걸쳐 보행로, 가로등, 체육시설, 난간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다음달 3일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지산IC 조선대 진출로 현장 점검을 하고 보안 조치를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준공·개통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 도로는 제2순환도로 산수터널에서 지산터널 방향 출구 램프부터 조선대 사범대학까지 이어지며 총연장은 545m, 폭 10m의 왕복 2차로 우회도로다. 지산동 주요 관문 도로인 지호로, 도시철도 2호

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남문로 등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설됐으며, 제2순환도로와 광주시 동구 도심을 연결해 중장로 상권 활성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는 총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도로를 개통했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광주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지반 침하가 잇따랐다.

결국 동구는 개통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12일 도로를 폐쇄하고 9억 4000여만원을 들여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발생한 지반 침하의 원인은 '부실 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복구TF를 구성하고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8~9m 높이로 흙을 쌓아올린(성토) 뒤 아스콘을 얹는 과정에서 성토한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사실(다짐 불량)이 확인됐다. 또한 동구는 현행 도로 개설 기준에 따라 시간당 70mm의 강우량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했는데, 지난해 장마 기간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침수로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도로 밑에 쌓인 흙 7015㎥(덤프트럭 500대 분량)를 모두 걷어내고 새 흙으로 채워넣었다. 성토한 흙 측면에는 5m가량 옹벽을 쌓아 흩어 빗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침수조 용량을 102㎡에서 140㎡로 확장했으며, 배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구간에 집수정

을 추가 설치하고 배수 관로 크기도 가로 1.5m 세로 1.5m 규모에서 가로 2m, 세로 2m 규모로 확대했다.

동구는 "조선대 2024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도로인만큼 안전에 신중을 기해 공사하느라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며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4월 다짐 불량 등 부실 시공을 한 이전 시공 업체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사업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8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북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공예품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GIST 노조, 취임 1년 총장 평가 설문조사 배경 주목

내부 구성원들 "채용 관련자 '숨방망이 징계'...자정·개혁의지 실종"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 노조가 임기철 총장에 대한 취임 1주년 중간 평가성격의 설문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전 집행부의 채용비리가 불거진데다 현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징계를 단행하는 등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내부 불만이 높은 시점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스트 노동조합(위원장 이충기)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임기철 총장에 대한 취임 1주년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임 총장은 2023년 7월 7일 지스트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설문조사는 총장과 집행부를 평가하는 1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 수행, 공약 이행, 청렴도 개선 등 항목에 대해 평가가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매우 ভাল',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등 5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돼 있다.

총장의 예산 확보, 대외 활동, 발전기금 확충과 함께 4대 과학기술원 특성화대학 중 GIST의 경쟁력과 역량 평가 등 핵심 내용도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최근 채용비리 연루자 등이 무더기 고발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지스트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들이 숨방망이 징계를 받는데다 일부는 현재 주요보직을 맡고 있어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고발인은 GIST가 지난 6월 징계의결한 전직 보직교수 4명과 채용비리 등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은 전 총장 등 3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징계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받았다. 현 총장은 내부 제보자를 '해고 행위를 한 교수'라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지스트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기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정상적 경로로 출근하다 추락사 했다면?

법원 "사측 책임 없어"

노동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사자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와 현장관리 책임자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 소홀의 일부 책임은 있다고 보고 A 건설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여수시의 한 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던 A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C씨가 출근 중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업무 시작 전에 출근하며 다른 근로자가 통상 출근하는 도로가 아닌 공사가 진행 중인 산책로를 통해 2.46m 높이의 석축을 타고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건설사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가 사망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C씨가 출근한 경로는 '통상적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출근 시간에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의 추락사고까지 방지할 주의 의무가 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서 골재 채취 작업 중 1명 매몰 증상

함평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돌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골삭기 기사가 매몰돼 중상을 입었다.

28일 함평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함평군 해보면 한 골재채취장에서 채석 작업 중이던 골삭기기사 A(51)씨가 무너져 내린 돌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시간여만에 구조된 A씨는 갈비뼈와 발목 등

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찰에 "돌산 발파 후 1시간 여가 지나 안전을 확인한 후 채석 작업을 시작했으나, 갑자기 돌이 무너져 A씨가 매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70대가 몰던 화물차 상가 돌진...운전자 부부 다쳐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듯 화물차가 상가로 돌진해 70대 화물차 운전자 부부가 부상을 당했다.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한 70대 아내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내리막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맞은편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상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